



수박 본격 출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광주 서구 풍암동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 경북 안동 등 고령지에서 온 수박이 쌓여 있다. 이날 현재 수박 도매가는 최상품 1만5000원~1만6000원, 상품은 1만2000원~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다시 꺼내든 '카지노 카드'

박지사, 'J프로젝트 해법' 복합리조트 건설 정부에 건의
중기업과 10억달러 MOU...허가 불투명 사행성 논란도

전남도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개발도시(J프로젝트)의 해법으로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하고 투자 기업을 찾아내자는 등 '아시아 카지노 전쟁'에 뛰어 들었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를 잇달아 유치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J프로젝트 부지에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고, 시내면세점에 지방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6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센터, 공연장, 대규모 회의장, 고급 레스토랑, 카지노 등이 모여 있는 대규모 시설로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리조트월드센트사, 마리아나 베이샌즈에서는 연간 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J프로젝트 부지에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외자유치단은 지난 18일 중국 산둥성에서 황회해 투자자주집단유한공사(이하 황회해그룹)와 J프로젝트 개발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황회해그룹은 삼포2단계 부지 내에 카지노, 호텔, 힐링, 상업, 업무, 주거시설, 자동차부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카지노 설립을 막고 있어 이 그룹의 투자가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미국의 카지노 거부인 셀든 애들슨 라스베이거스샌즈(Las Vegas Sands Corp) 회장이 J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카지노 설립이 힘들어지자 포기하기도 했다. 사행성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금지 않은 지역사회의 시선도 걸림돌이다. 전남도가 카지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카지노 허가를 투자하는 조건을 내거는 해외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카지노 마케팅'은 전남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제주 에래유양형 주거단지, 인천 영종농홀도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이다. 이들 지자체가 앞다퉈 해외 자

빛고을 문학관 입지 다시 원점으로

추진위, 부지선정·위원회 존치 여부 광주시에 일임

광주시의 '빛고을 문학관' 건립이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다. 빛고을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황하택·이하 문학관, 추진위)는 19일 광주시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문학관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던 명성예식장을 포함한 건립부지권을 '백지상태'로 하고 광주시에 전권을 맡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위임을 받아 문학관 부지 선정업무를 맡았던 추진위 존치 여부도 시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관련 기사 12면> 추진위는 "문학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문제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선정한 문학관 후보지(명성예식장)를 둘러싸고 시의회, 문학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은 이번까지 건립부지 논란으로 두차례나 차질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 2010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내 건립계획을 바꿔 광주시 동구 운림동으로 변경했고, 주민들의 사업확장 요구로 운림동 건립을 백지화 한 바 있다. 시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강운대 광주시장의 최근 시의회 발언이 주목된다. 강 시장은 문학관 부지

광주일본 리더스 아카데미-개그우먼 조혜련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광주시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본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개그우먼 조혜련(44)씨는 '도전과 행복' 주제의 특강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2면> 조씨는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그우먼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하며 소위 '잘나가는 개그우먼'으로 불리던 그는 지난 2007년 들인 일본 연예계에서 방송활동을 시작했고, 2년 만에 NHK 진행자를 꿰찼다. 이후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어 전문가가 되어 '조혜련의 막장 일본어' 등 서적을 내기도 했다. 또 잠시 방송활동을 접고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 10개월 만에 HSK(중국어 능력 시험) 5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시사중국어 사적인 '편향 중국어 첫걸음'을 냈던 그는 이날 말 또 다른 중국어 관련 책을 출간할 예정 이다. 그는 이날 자신이 개그우먼에서 일 분야·중국어 전문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좌절, 아픔, 성공과 불혹이 넘어 시작한 강연자로의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갔다. 조씨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신이 힘든 순간마다 큰 힘이 됐던 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사색하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위원장 이원종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71) 전 충북지사, 민간위원에 신순호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와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규 한국지방재연구원장을 각각 위촉했다. <관련 기사 5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 18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단원적으로 참여한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 4명, 호남과 충청 각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수도권 7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백지영기자 jpkp@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6월 24일(월)~28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062)360-0166
여로관광여행사 061)742-1270
남해여행사 061)287-4100
2013 F/W 허니문페어 최대 50만원 할인

London Stock Exchange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홍콩, 마카오 & 홍콩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8월7일~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세부지역
899,000원 ~
1,099,000원 ~
1,199,000원 ~
광주/전남 기획상품
장주출발 백두산 4일 /5일
무안출발 북경 299 특가!
299,000원
국내 골프 상품
185,000원 ~
259,000원 ~